



관계 종사자들이었다. 김순하도 토목과에서 근무하던 1925년경 이 모임에 가입했다.

### 김순하의 건축활동

김순하는 이때부터 1934년 9월 20일 조선총독부로 자리를 옮길 때까지 일본인 건축사들과 경쟁하면서 광주의 근대적인 건축물 몇 가지를 설계했다.

그가 설계한 건물로 비교적 규모가 큰 것은 공공 건물로는 전남도청사(1930년경 설계) 및 전라남도 회의실(현 민원실, 1932년 준공, 광주광역시 유형문화재 6호)이 있으며, 私의인 건물로는 호남의원(금남로 확장 때 철거), 중앙의원, 춘목암(1935년 준공), 정석호씨 댁(1930년대 초로 추정) 등이 있다.

본래 도청 본관은 2층 적색 벽돌조로 건축되었으나, 해방후 미군정청이 들어서면서(혹은 5.16쿠데타 직후에) 미국의 백악관처럼 흰색으로 도색되었다. 그 후 3층으로의 증축은 1975년에 광주지역에서 활동한 김태만(작고)에 의해 설계되었다.

전라남도 회의실은 1981년에 지방문화재 제6호로 지정된 지하1층, 지상2층의 적색 벽돌조 건물이었으나 역시 흰색으로 도색되었다. 선생은 도청 회의실을 설계할 때 붓으로 기록했는데, 지금도 설계도면이 남아 있어 당시 건축설계문화의 단면을 보여 주고 있다. 특히 이 도면은 1997년 광주광역시 지정 문화재 24호로 지정되어 주목을 끌고 있다.

한편 전남도청 회의실의 건축은 일본인 도급업자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1931년 11월 3일 도급업자의 실수로 3층 천장이 붕괴되어 인부와 목수 등 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사고이후 일본인들은 관청 건물을 건축하는 데 자신들이 배제된 것에 불만을 품고 설계가 잘못되어 생긴 사고라는 여론을 조작해, 김순하는 15일 동안 구류처분을 받았다. 후일 이 사건은 총독부 기술진이 현장조사 차 들려 조사한 결과 일본인 도급업자의 잘못으로 판명되었다. 아무튼 전남에서는 가장 중요한 도청의 설계를 김순하가 맡음으로써 그의 능력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진 셈이었다.

김순하에 의하여 설계된 「춘목암(春木菴)」(전 광주미문화원)은 당시 광주에서 가장 인기있고 규모가 큰 한국식 요리집이었다. 춘목암은 황금동 80-81번지에 있었는데 4백41평의 넓은 대지에 연건평 2백21평의 큰 규모였다. 1917년 마산에서 광주에 온 이춘실(李春實)은 황금동 네거리 콜박스 부근에서 우동집을 시작하였다. 그의 뛰어난 요리솜씨와 타고난 근면성 그리고 정직한 경영으로 우동집은 해를 거듭할수록 번창하여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었다. 그 덕으로 지금의 리버사이드호텔 자리 황금동의 넓은 부지에 저택도 갖게 되었으며 구 광주미문화원자리를 사서 1925년경 춘목암이라는 요리집을 차렸다. 사업은 순조로웠으나

이춘실은 병을 얻어 1929년 세상을 떠났다. 당시 아들은 어려서 그의 여동생인 이진(李珍)이 남편 조성순(趙成洵)과 함께 요리집 경영을 맡게 되었다.

춘목암은 조성순의 능란한 사업솜씨에 의하여 날로 번창하였으며 옆의 목욕탕까지 사들여 새로 건물을 지었으며 1933년경 무등산 기슭 중심사 입구에 각종 나무를 심은 대규모 정원에 분수까지 갖춘 호화스런 춘목암 별장(현 삼애산장)을 신축하게 되었는데 이들이 김순하의 작품인지 분명하지 않다.

김순하는 춘목암의 경영자였던 조성순의 요청에 의해서 건물설계를 맡았다. 그후 춘목암은 해방직전 일제의 전시체제 전환에 따른 유흥업소 정비로 폐업되었고, 건물은 순천철도국에 매수되어 광주보선구 사무소의 직원합숙소로 사용되었다. 해방 후 이 건물은 적산으로 처리되어 미군숙소와 미군장교구락부로 이용되었다. 그러다가 1919년 9월에 광주 미국공보원으로 사용되었고, 1970년대 후반에는 광주 미국문화원으로 개칭되었다. 현재는 옛 건물이 철거되고 그 자리에 주차장건물이 들어섰다. <조선과 그 예술>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일본 동양대학교수 야나기(柳宗悅)가 1937년 이곳에 들러 당시 호남은행장인 현준호에게 저녁대접을 받은 이야기는 더욱 흥미롭다.

1934년 9월 20일 기수(技手)로 조선총독부 관방회계과로 자리를 옮긴 선생은 1942년 4월 1일에는 기사로 승진했다.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이 시절 선생이 현재의 태릉 육군사관학교 내에 있는 과거 일본 군인의 훈련소 건물을 설계했다고 한다. 그후 1943년 4월 6일 조선주택영단(현 대한주택공사) 기사 자격으로 건설부 건축과장으로 근무하다가 해방을 맞았다.

### 김순하의 작품세계

섬세하고 우아하다는 평을 받는 김순하의 건축양식은, 목재를 사용하는 한국의 전통 건축양식과는 달리 벽돌과 콘크리트를 주로 사용하는 서양식 건축양식이었다. 이러한 건축양식은 서양인의 공관이나 종교시설 등을 통해 처음 조선에 소개되었으며, 일본인들이 관청이나 학교, 병원 및 각종 행정시설을 건축하면서 점차 유행하는 양식이 되어 갔다. 특히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은 서양 선교사들에 의한 종교건축이나 사택, 그리고 일본의 근대 건축양식이었으며, 중요한 건물들의 대부분은 총독부 지시들에 의해 건축되었다.

일제시대의 건축물 중 많은 건물은 르네상스풍의 건물이었고, 나머지는 절충주의 혹은 네오바로크 양식이었다. 이러한 건축양식은 적합성, 단정함을 무시하고 장식 그 자체에 치중함으로써 건물을 상징화하는데 중점을 둔 것이었다. 따라서 식민지에서 일본 본국의 위엄과 권위를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어서 매우 선호되었다. 몇 년 전 철거한 조선총독부 청사가 그러한 예라

하겠다.

그러나 당시 광주지역의 건물들은 서울처럼 양식 주의적인 경향이 뚜렷이 나타난 것은 아니나 그러한 규범을 따르는 흔적이 보인다.

그후 1920년대 일본 자본이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조선의 공업화가 진전됨과 동시에 서구의 합리주의, 기능주의 건축양식이 점차 도입되었다. 그렇지만 질충주의 건축수법은 해방이후까지 여전히 잔존했다. 이러한 와중에서 김순하의 건축설계 작품은 섬세하고 우아한 것이 특징이었으며, 시대적인 경향을 크게 벗어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기능주의적이고 국제주의적인 건축양식의 경향을 점차 표현했다. 이러한 흔적은 간결하면서도 중후한 느낌을 주는 전남도청이나 회의실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 해방 이후의 활동

김순하는 해방 이후에도 조선주택영단에서 1946년 6월말까지 근무하다가, 1946년 7월 1일 토목건축회사인 유일사에 전무로 입사했다. 이때부터 선생은 독자적인 개인사업을 구상했다. 그래서 1949년 12월에 유일사를 그만두고, 한국전쟁 직전인 1950년 3월 서울 중구 태평로에 삼육건설주식회사와 삼육건축설계사무소를 설립하여 대표로 취임했다. 이들 회사는 건축설계 뿐만 아니라 직접 건설까지 담당했다. 그러나 회사를 설립한 지 얼마 안되어 6.25전쟁이 발발했고, 같은 해 12월 부산으로 내려가 건축업을 계속했다. 그후 삼육이라는 건설회사 이름을 삼광으로 고쳐 전쟁의 폐허 속에서 시설복구 및 건축사업에 주력했다.

한편 해방 후 김순하는 건축과 관련된 여러 단체나 모임에서 주도적인 활동을 했다. 선생은 초반에는 '조선건축기술단(경성고등공업학교 출신들이 중심이 되어 1945년 9월 1일 결성)', '조선건축학회(1945년 12월 결성)' 등에서 활동하다가 후반에는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주로 활약했다. 이 시기 선생의 주요활동으로는 조선건축기술단에서 식민 기간동안 변질된 건축술어를 우리말로 고치기 위하여 1946년 2월에 결성한 '건축술어연구회'에 참여한 것과 주택문제에 관한 강연활동 등을 들 수 있다. 선생의 이러한 활동은 한국전쟁 이후 더욱 활발해져 1954년 3월에 창립 총회를 개최한 '대한건축학회'에서 부회장에 당선되어 1958년까지 역임했다.

또한 경기도 지역의 건축대서사(1948년 서울에서 건축대서사 시험이 처음으로 실시됨)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구)대한건축사협회'에서 3대 이후 회장을 역임했다. 선생은 이 기간에 '건축사법'을 기초하기도 했고, '건축공사표준시방서 편찬위원회'에도 위원으로 참가했다. 그리고 '건축사법'에 의거해 1965년 4월 25 ~ 26일에 1급 건축사 자격시험이 치러질 때,

김순하는 시험관 자격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그후 시험합격자들을 중심으로 하여 새로운 협회 창설발기인을 구성, 1965년 10월 23일 '(신)대한건축사협회'가 결성되었다. 당시 선생은 병원에 입원 중이었으나, 초대 회장으로 선임되었다. 이 외에도 수많은 각종 건축·건설 모임 및 정부기관의 위원을 역임했다.

김순하는 다양한 활동의 와중에서도 서울 영등포 오류동에 일신산업주식회사 공장(1963)을, 충남 모산에 한국마방적주식회사(1964)를, 그리고 서울 후암동에 일신산업주식회사 주창균 회장의 집(1965) 등을 설계했다. 그리고 선생이 사망하기 직전인 1966년에는 한국상업은행 본점을 감리하기도 했다.

김순하는 1966년 12월 27일 그가 1963년도에 설계한 서울 흥은동 자택에서 위암으로 사망했다. 선생의 장지는 모란공원에 있으며, 사망 10주기 되던 해에 대한건축사협회에서는 김순하를 추모하는 비석을 세웠다. 강원도 동해시에 있는 김순하의 생가는 강원도에서 유형문화재 제84호로 지정하였었다. 그러나 현재의 소유자인 김동성(선생의 막내 동생 아들)씨가 문화재 지정취소를 한 건물로서 최근에 유지 보수가 개인의 자력으로는 어려워 문화재로 재지정되기를 바라고 있다. 김순하의 생가는 200여 년 전에 건립된 집이라고 전해지는데 현재는 건물이 와해 직전에 있다고 한다.

선생이 설립한 삼육건축사사무소는 현재에도 서울 종로구 안국동에서 선생의 친척이자 전 서울시 건축사 회장인 유경철과 강진성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

한편 김순하의 장남인 김완호는 연세대 건축과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김순하의 직업을 잇고 있다.

### 〈참고문헌〉

- 천득염, 광주지방의 일제치하기 건축, 안당 임영배교수회갑기념논총, 1992.
-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학회40년사, 1985.
- 전라남도지 및 광주시사
- 박선홍, 광주백년 2, 금호문화, 1994
- 정근식 외3인, 근현대의 형성과 지역 엘리트, 새길신서 40, 김순하, "근대건축사의 큰 별" (김순하의 해방 후 건축설계 활동은 유경철씨의 증언에 의함)
- 최장순, 김순하선생의 생가에 대한 고찰